

AUTHOR 박종형

TITLE 칼빈과 교회 갱신

IN 월천

Vo. 410 (1984), 1-5.

칼빈과 교회갱신



朴 鍾 淳

칼빈이 태어나던 1509년대는 전 유럽이 로마 천주교의 정신적 지배 아래 있을 때였다.

요한 칼빈은 1509년 제랄 코반(Gerrad Cauvin)과 잔느르 후랑(Jeanne Le France)의 둘째 아들로 피카르디(Picardy) 지방의 노온(Noyon)에서 태어났다.

칼빈의 아버지는 아들을 훌륭한 법학도로 키우는 것이 꿈이었다. 그래서 1528년 부친의 명을 따라 1528년 2월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 올레안대학(1'Universite'd'Orléans)에 입학 레스트(Pierre de l'Estoile) 교수에게서 사사하는 한편 불마

르(Mel Chior Wolmar) 밑에서 고전과 성서를 연구했다.

칼빈이 루터의 종교개혁에 관심을 가지게 된것은 1530년 부르주 대학에서 불마르에 의해서였을 것으로 본다.

칼빈은 그의 생애동안 명저「기독교강요」를 남겼고 신구약 주석 등 신학자로서 교회 정치가로서 1564년 5월 27일 그가 숨을 거두기 까지 뛰어난 활동을 하였다.

칼빈의 신학은 그의 명작 '기독교강요'에 드러난다. 기독교 강요는 전 4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 권은 창조주 하나님

제 2 권은 인간의 죄와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제 3 권은 성령

제 4 권은 거룩한 공회로 되어 있다.

1. 교회란 무엇인가

칼빈은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서 구원과 영원한 축복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무지와 나태함과 마음의 허망으로 외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이와같은 우리의 필요에 응해서 하나님의 보화인 복음을 교회에 맡겨서 교회로 하여금 그 복음을 전파케 하셨다” 고 했다.

그리고 “이 세계 안에는 교회라는 신의 질서가 있으며 “교회는 신의 계시의 장소이며 그리스도와 우리의 만남의 장소” 라고 했다.

칼빈은 교회를 ‘신도의 어머니로서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선택받은 자들의 무리로서의 교회’ 라고 지칭했다. 그러면서 교회란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가 있음을 밝히고 참 교회와 거짓 교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교회의 분파와 “교리에 관한 어떤 문제로 인하여 험사리 교회를 떠나는 행위를 경계하였다. 결정적인 이유없이 어머니 교회로부터 분리하는 자는 신을 부정하며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며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은 나누일 수 없기 때문” 이라고 했다.

교회에 관한 성서적 명칭을 살펴보면 구약에서는 카 할(קהל) : 부른다, 소집한다, 집회, 총회를 의

미했고(신 31 : 30, 민 16 : 3, 느 13 : 1). 에다(עדה) : 지정된 때와 장소에 함께 모이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70인 역에서는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와 쉬나고게(συναγωγή)로 사용되었다.

에클레시아는 ‘불러낸다’ (ἐκ - 밖으로, καλέω - 부른다)는 뜻이며 쉬나고게 (σύν - 함께, ἄγω - 온다)는 ‘가져온다, 함께온다’ 등의 뜻으로 유대인들이 집회하는 건물을 가리켜 독점적으로 사용했다.

예수 자신은 마태복음 16 : 18과 18 : 17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주로 공인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교회’를 적용시켰다.

신약성서를 살펴보면 교회의 성격을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① 그리스도의 몸(엡 1 : 22, 골 1 : 18, 고전 12 : 27) :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상호관계를 강조하는 성격이 두드러지고 있다.

② 성령의 전(고전 3 : 16) :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중에 계시기 위해 택하신 처소였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란 교회의 거룩성과 신성성과 순결성을 강조한다.

③ 새 예루살렘(계 3 : 12, 12 : 2) : 계시록에서의 교회는 영적인 예루살렘으로 묘사되고 있다.

시온산이 예배의 중심지였던 것처럼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영원히 현존하시는 곳으로 간주된다(히 12:22).

④ 새 이스라엘(마 21:43).

새로운 이스라엘의 출현과 상속권의 이양으로 새로운 백성이 형성되리라는 것이 강조된다.

⑤ 진리의 기둥과 터(딤후 3:15).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 보호하는 그리고 방어하는 공동체라는 것이다.

⑥ 하나님의 권속(갈 6:10).

브루스 쉘리(Bruce L. Shelley)는 '하나님의 백성'을 셋으로 구분했다.

첫째는 부름받은 백성이며(Called People)

둘째는 계약된 백성이며(Covenant People)

셋째는 선택된 백성(Chosen People)이라는 것이다.

교회란 인간의 노력에 의하여 조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이 성경자체의 증언이며(마 16:18), 갈바의 신학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봉사를 위하여 그리스도 자신에 의하여 정하여져 있다."

2. 갱신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로부터 불러내신 것은 선택과 성별을 위한 계획된 섭리에 의해서였다. 다시 말하면 선택되고 성별된 백성을 형성하고 그들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며 인류구속의 대속사역을 성취하시려는데 그 뜻이 있었다. 그러나 택함받은 백성은 수시로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외면했다(사 2:7-10).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영적 각성과 회개를 위하여 진노하셨다. 그들의 영적 상태가 저하되고 위기에 처할 때마다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셨고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사역하셨다. 이것은 곧 선민 이스라엘을 갱신하려는 하나님의 의지와 행동이었다.

이스라엘의 복고적 범죄와 타락의 반복은 일시적 현상이기 보다는 그들이 지닌 근본적 타락에 그 원인이 있었다.

다시말하면 해아래 새것이 없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인간의 전적 타락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갱신의 요청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갱신의 요청과 맥락을 함께 한다.

그런 의미에서 갱신(Renewal)이란 '복고'이기 보다는 새로운 '피조'를 의미한다.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고(고후 5:17), 예수는 '들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했다(요 3:5).

참된 의미의 갱신은 불교가 말하는 영원한 회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것이며 하나님에 의하여 새로운 역사로 빚어지는 것을 말한다.

'Re'란 근본으로 되돌아감을 의미하기 때문에 Renewal이란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타락이전의 근원으로 되돌아 가는 것이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여기서 분명해지는 것은 갱신의 주체이다.

인간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갱신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인간은 갱신되어야 할 객체이자 갱신케 하는 주체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제도나 학문이나 의도를 내세워 역사와 교회 갱신을 운위하는 것은 인간 지식의 독선이며 오만이다.

3. 칼빈과 교회갱신

루터로 시작된 종교개혁과 그의 사역을 후속했던 개혁자들의 개혁 의지는 교회의 원형을 에워싸고 있는 온갖 비교회적 배일들을 벗겨내는 일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의 참 모습을 드러내려는 것이 개혁의 본질이었고 로마 천주교회 도그마에 의해 가리워진 '복음'을 그 굴레로부터 벗겨 내어 복음의 광명한 빛을 되찾자는 것이었다.

종교개혁(Reformation)이란 참교회 본래의 교회애로 되돌아 가자는 운동이며 되찾는 운동이었다.

칼빈은 "하나님의 교회란 다만 그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리며 그의 명령에 따름으로서 모든 타락된 종파들과는 구별된다" 라면서 로마교회의 제도와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즉 로마교회는 결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로마교회 뿐이겠는가. 만일 현대 교회 안에 로마교회적인 비복음적이거나 타락된 요인들이 내재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갱신의 요청일 것이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은자와 그리스도의 몸'임을 강조한다.

이말의 의미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자각과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복종과 선포를 다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칼빈은 참 교회란 '예언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는 교회'라고 말했다.

손봉호 교수는 갱신의 요소를 넷으로 지적했다.

첫째는 의롭게 되는것

둘째는 성화

셋째는 성령의 내재

네째는 크리스찬의 승리생활이라고 했다. 물론 지상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완전무결한 것이 될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칼빈은 흠이 없는 교회를 말하는 재세례파의 이상을 통박한다. 이유는 교회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것은 이상적인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교제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칼빈은 '그리스도 자신'에 초점을 두었다. 교회가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의 선포에서 떠났다

면 그것은 교회일 수가 없다는 것을 천명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공동체로서 그리스도 재림의 날까지 선포의 사명을 다 하는 것이 교회에 주신 특권이며 사명이라고 볼 때 교회 안에 잠식되어 있는 온갖 말씀, 외적인 사악한 요소들과 복음의 빛을 가리우고 있는 수다한 껍질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깨뜨리고 복음의 큰 소리를 발하는 것이 개신이 되어져 가는 교회의 모습일 것이며 개혁자들이 열망했고 삶을 바쳤던 개신의 의지에 답하는 길이 될 것이다.

(예장 총신교회 당회장)

새생활의 출발

-평신도 육성교재 입문-

□ 차례 □

- I. 믿음의 문을 열기까지
- II. 새 생활의 안내
- III. 믿음의 도리
- IV. 부 록

□ 고급문고판70면. 정가300원

귀 교회는 새신자

공부만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새로 믿기 시작한 분들에게 알기 쉽게 지도하여 신앙의 성장을 도와야 합니다. 이 교재는 이러한 목적으로 꾸며졌으며 이 교재가 효율적으로 활용됨으로 심도들에게 좋은 신앙의 밑거름이 되어 교회 부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